

## 화제만발 광주비엔날레 11일 폐막

# 아시아의 대표 미술축제 뿌듯 스쳐가는 미술쇼 아쉬움 여전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미술축제인 제 9회 광주비엔날레가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내만 10개가 넘는 비엔날레의 홍수 속에서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을 주제로 '아시아 대표미술제에 걸맞은 전시'를 선보였고, 비엔날레 전시관을 벗어나 광주 전역으로 미술 축제의 장을 넓힌데다, 2000명에 육박하는 시민 참여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지역 문화계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설 20년을 앞두고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비엔날레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여전히 낮아 '스쳐가는 미술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12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폐막을 4일 앞둔 7일까지 모두 41만9708명의 관람객이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았다고 8일 밝혔다. 유·무료 관람객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지난 2010년 비엔날레 때 같은 기간(44만8800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2008년 행사(34만1000명)에 견주면 늘어난 수치다.

유료 관람객만 놓고 보면 올해의 경우 21만1000명이 전시장을 찾아 지난 2010년 같은 기간(27만명), 2008년 "(28만명)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에 다 예년과 달리, 입장권 구매 없이 이뤄진 자발적 관람객이라는 면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전시와 관련, 서구 저명한 큐레이터를 예술 감독으로 선임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아시아 출신 여성감독 6명을 공동 감독으로 선임, 주류인 서구 미술계가 추구해오던 것과는 다른 아시아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에 걸맞는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관람객들의 눈길을 붙들 정도로 '임팩트'를 주는 대표적 작품이 눈에 띄지 않아 가족이나 대중에게 문턱 높기로 알려진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문화계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

다 터져나왔던 '그들만의 미술잔치'라는 지적도 다소 완화됐다.

김선정 공동책임감독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만 보러 온 게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를 둘러보고 광주에 있는 다른 작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시를 대인시장·무각사 등으로 분산시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9회째 순수미술 행사를 치러왔지만 지역민들의 문화 마인드를 높이는 인프라로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의 20%가 단체관람객인데다,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 관람이 이뤄져 이대로는 '비엔날레 키즈' 육성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 마인드 향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

컬러컨텐츠임에도, 비엔날레를 도시 문화관광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저조하지만 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문화계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국제영화제 개막

이희호·文후보 참석  
DJ 노벨영화상 수여

제 12회 광주국제영화제가 8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를 비롯한 조위 모델, 정지용 감독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에서는 이희호 이사장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과 '터넷의 노래'의 시에 페이 감독에게 제2회 김대중 노벨영화상 본상과 특별상을 수여했다. 개막작으로는 필리핀 노동자의 영구 이주를 배경으로 한 조위모델 감독의 '레오나 칼더론'이 상영됐다.

한편 영화제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북한과 중국의 첫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원제 아리랑) 등 14개국 55편의 장·단편영화가 상영된다. /박진표기자lucky@

# 수리·외국어 어려웠다

만점자 1% 안될 듯...언어는 대체적으로 쉬워

## 수능 문제풀이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8일 치러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수능은 내년 국어·수학·영어에 수준별 시험(A·B형)이 도입되기 전에 치러진 마지막 시험이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역 교사·수험생들은 수리 영역이 지난해 보다 까다롭게 출제됐고, 지난해 매우 쉽게 출제된 외국어도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언어영역 비문학 문항도 수험생들을 고전하게 했다. 입시전문기관은 언어에서는 출제 당국의 목표치인 영역별 만점자 1% 수준이었으나, 수리의 경우 1% 달성

이 어렵고, 외국어도 1% 보다는 만점자 비율이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량 수능 출제위원장(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 "언어는 작년 수능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렵게 봤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고교교사와 수험생들은 언어를 제외한 수리와 외국어가 대체로 까다로웠다고 평가, 고득점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규연(수완고) 교사는 "언어영역 비문학의 과학지문 등 변별력 있는 문항이 포함돼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철민(송덕고) 나눔인사컨설팅 연

구회장은 "이과 수험생들이 수리 '가형'의 서술형 5문항에서 고전했다"며 "난해한 도형과 연관된 문제들이고 계산식이 워낙 복잡한 문제푸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에서 만점자가 2.67%에 달했지만 올해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수험생들은 특히 빈칸이 두개로 구성된 빈칸 추론 유형이나 독해, 문단 순서 맞추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수능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19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28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찰은 우울하다

## 고위직 인사 앞두고 승진 대상자 극소수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은 우울하다. 경무관 인사에서 지역 출신 승진대상자가 극소수이거나 아예 전멸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부처는 물론 검찰·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들이 줄줄이 배제되어 온 가운데 그나마 인맥을 유지해오던 경찰 조직에서도 '호남 실종'이 이어지거나 없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8일 "12명 내외의 경무관급 승진 인사를 앞두고 5배수의 인원에 대해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무관 승진 심사대상은 총경 근무연수 4년,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그러나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총경 45명(광주 16명, 전남 29명) 가운데 심사 대상자는 단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심사대상

자에 오른 이 지역 출신 총경도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경찰청에서는 경무관 승진자 배출이 상당히 어려운데다 심사대상 이 된 지역 출신 총경 수도 적어 자칫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 지역 출신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강이순 당시 광산서장(현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2년 동안 승진자를 내지 못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과거 경찰 인사에서 적어도 '호남 3, 영남 4, 수도권·충청 3'이라는 나름의 원칙이 지켜졌지만 이 정부에서 완전히 파괴됐다"며 "경찰 인사의 지역 안배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정보위에 출석한 경찰 고위간부는 "이번 경무관 인사부터 (지역 안배와 공정성)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lucky@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전남도립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지방공립대중 최초

전남도립대학이 지방공립대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제를 전면 실시한다. 전남도는 8일 "도립대 학생들의 연간 수업료를 50% 인하,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한 것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전남도립대는 내년 1학기부터 신

입생 860명과 2학년 960명, 3학년(유아교육과) 70명 등 전체 학생 1890명을 대상으로 기성회비를 뺀 수업료의 50%만 부과할 방침이다. 이공계는 학기당 91만4000원인 수업료가 45만7000원으로, 인문계는 75만7000원에서 37만9000원으로 각각 줄게 된다. 이렇듯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 안팎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기당 기성회비(이공계 55만1000원·인문계 45만4000원)까지 합하더라도 1인당 실질등록금은 10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립대 전출금을 73억2500만원으로 18억2500만원 증액했고, 이 중 13억원은 반값 등록금 보충용으로 쓸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 넓은 세상을 보라

##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